



영적, 육체적인 자립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아프리카 대륙, 바다의 섬들, 중남미, 아시아, 유럽 및 미국 빈민가의 중심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을 여행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빈곤한 사람들의 “제발 도와달라”는 간절함이 종종 울려 퍼집니다. 아프리카만 보더라도 그러한 외침은 소수가 아니라, 몇만 명 심지어 몇 백만 명에게서 나옵니다.

교회는 1936년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가 새로 설립된 복지 위원회의 총회장으로 임명된 이후로 자립을 가르치는 일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해롤드 비리 장로가 첫 번째 관리 담당자로 봉사했고, 매리온 지 롬니 장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래 교회는 자립의 원리에 대해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교회 지침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교회와 회원들이 자립하고 독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

“자립하기 위해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 일은 육체적, 정신적 혹은 영적인 노력이다. 일은 행복과 자기 가치 및 번영의 근원이다. 일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생애에 많은 선한 일을 성취한다. ...

“사람들은 자립하게 될 때, 남에게



자립은 환경이나 문화,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엄성과 중요성에 그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의지하지 않고 역경을 보다 잘 견딜 수 있게” 되고 “궁핍한 사람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된다.”¹

매리온 지 롬니 회장(1897~1988)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립 없이는 봉사하고자 하는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소망들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텅 빈 찬장에서는 굶주린 자들을 위한 음식이 나올 수 없습니다. 텅 빈 지갑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에게서는 도움과 이해심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가르침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약한 사람에게서는 영적인 인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² (리아호나, 2009년 3월호, 19쪽 참조)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1899~1998)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빈민가에서 사람들이 빠져 나오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서 빈민가를 없애서서 그들이 스스로 빈민가를 빠져 나오게 하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환경을 변화시켜 인간의 틀을 잡으려 하나, 그리스도는 인간을 변화시켜 인간이 그들의 환경을 바꾸게 하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나,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³

윌리엄 조지 조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의 걱정과 근심과 기쁨에 취해 당신에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성공에는 오직 한 가지의 열쇠만이 있습니다. 바로 자립입니다.”⁴

경험을 통해 저는 몇 가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원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영을 통해 해답을 찾음

첫째,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더라도,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로니이는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모로니아서 7:16)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은 영을 통해 좀 더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비롯해서 그들이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며 그들 하나하나를 향한 우리의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꼭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이신 그분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자립적이 됩니다. 이것은 엘마서 34장 27절에 언급된 영이며, 그 구절에서는 우리에게 집과 가족과 일터를 위해 주께 호소하라고 권고합니다. “또한 너희가 주께 부르짖지 아니할 때는, 너희의 마음으로 ... 너희의 복리와, 또한 너희 주위에 있는 이들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그에게 기도하는 데 너희 마음을 기울이도록 하라.”

자립은 환경이나 문화,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엄성과 중요성에 그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평가함

둘째, 우리는 자신의 삶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에 얼마나 잘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영원한 진리와 교리에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의 인도에 따라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무하마드

유누스가 방글라데시에서 소액 금융의 창시라고 일컬어진 매우 독특한 은행을 세웠을 때 그가 분명 영에 인도되었을 거라는 사실에 저는 감명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했던 그의 노력으로 인해 20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누스는 그의 초기 전략이 무엇이었는데 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떠한 전략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갖고 있는 자금으로 도움을 주고자 했고, 은행에 찾아가 협조를 부탁했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전략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은행가들이 하는 일의 반대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은행가들은 부자들에게만 대출을 해 주려 했고, 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대출을 해 주려 했습니다. 은행가들은 거액의 대출만을 해 주려 했고, 저는 아주 소액의 대출만을 해 주려 했습니다. 은행가들은 남자들에게만 대출을 해 주려 했고, 저는 여자들에게만 대출을 해 주려 했습니다. 은행가들은 담보가 있을 시에만 대출을 해 주려 했고, 저는 담보가 없어도 대출을 해 주려 했습니다. 은행가들은 방대한 서류 작업을 요구했고, 저는 문맹인조차 이해할 수 있는 대출을 했을 뿐입니다. 은행가들은 고객을 은행으로 오도록 요구했고 저는 제 은행을 마을로 가져갔습니다.”⁵

은행들은 높은 체납율을 예상했지만, 유누스는 체납율을 거의 기대하지도



무하마드 유누스가 방글라데시에서 매우 특별한 은행을 세웠을 때, 그는 분명 영에 인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은행가들이 하는 일의 반대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은행가들은 부자들에게만 대출을 해주려 했고 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대출을 해주려 했습니다. 은행가들은 거액의 대출만을 해주려 했고 저는 아주 소액의 대출만을 해주려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누스 씨의 은행은 대외 의존도 없이 4억 달러가 넘는 돈을 대출해 주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주의 영이 이 고결한 노력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립하기 위해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 일은 육체적, 정신적 혹은 영적인 노력이다. 일은 행복과 자기 가치 및 번영의 근원이다. 일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생애에 많은 선한 일을 성취한다.”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기

셋째, 모든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즉 육체로 말할진대 사람은 자유로우며 ... 또 그들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힘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니파이 후서

2:27). 세상에는 자유가 억압된 곳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각각의 영혼이 선이나 악을 선택하는 개인적인 자유는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에 필수적인 영원한 진리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그들의 자녀로부터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선택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분, 매시간, 매일 우리는 결정을 내리는 교차로에 서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사교하게 해주는 생각과, 느끼도록 해주는 열정과, 행하도록 해주는 행동을 선택한다. 모든 선택은 우리의 삶을 좌우하기 위해 선택한 가치 체계 안에서 결정된다. 어떤 가치 체계를 선택할 것인가는 단연코 우리가 선택 할 모든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유일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분의 섭리에 의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많은 선택을 할 것이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존재를 경외하고 숭배와 기도와 감사를 통해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많은 선택을 할 것이다. 인류는 모두 한 가족이며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봉사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많이 할 것이다. 현재의 모든 잘못된 일들이



미래에는 올바르게 되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많이 할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많이 할 것이다.”

프랭클린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데에 있고,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사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하는 가치 체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을 주관하시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열심히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인간의 행실에 강력한 표준이 되는 일이다.”⁶

올바르게 생각하기

넷째, 올바르게 생각하는 능력을 익히십시오. 프랭클린이 “모든 행복의 근원은 올바른 생각입니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세상이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추락하고 무너져 내려감에 따라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미래에 더욱 중요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제 사무실에는 저의 조부이신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걸려 있습니다. 그분은 혼수상태를 반복하며 병원에 계셨습니다. 제 부친의 말씀에 따르면,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눈을 뜨신 후 방안을 바라보시고는 “형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올바르게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더니, 몇 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65년이 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날 세상은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합니까? 올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상식을 활용해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체스터필드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식은 (사실상 매우 보기 드문) 내가 알고 있는 최상의 분별력이다. 그것을 따르라. 그것은 당신에게 최상의 조언을 줄 것이다.”⁷

저는 임무를 수행하며 자립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고 능력의 부재와 상식을 적용하지 못한 결정에 의해 사실상 남들에게 더 의존하게 되는 슬픈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인생 대부분의 불행은 상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데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신경 흥분제를 백 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조절해야 하는 약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 원짜리가 없어서 오십 원짜리 두 개 크기만큼 조절을 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생각하고 상식을 활용하도록 돕는 일이 그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도록 돕는 데 있어 언제나 매우 중요한 단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이 참되고 진지한 길을 걷도록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도록 가르치는 것의 일부입니다. (모사이아서 4:1 참조) 올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영의 인도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인도를 구함

다섯째, 주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교리와 성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그들의 상은 클 것이요, 그들의 영광은 영원하리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모든 비밀, 참으로 옛날부터 나의 왕국의 감추어진

모든 비밀을 드러낼 것이요, 장차 임할 여러 시대 동안 나의 왕국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선하고 기쁜 뜻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하도다. 영원한 기이함까지도 그들이 알게 될 것이요, 장차 임할 일들, 곧 많은 세대의 일들을 나는 그들에게 보여주리라.

“이에 그들의 지혜는 커질 것이요, 그들의 이해력은 하늘에 닿으리니, 그들 앞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소멸할 것이요,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지리라.

“이는 나의 영으로써 내가 그들을 깨닫게 할 것이요, 나의 권능으로써 나의 뜻의 비밀, 참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들어온 적이 없는 것까지도 그들에게 알게 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76:5~10).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빛을 전달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겸약하는 삶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개척자의 조상의 모범을 따르고, 희망의 빛을 신뢰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영적 경제적 자립으로 인도하는 지식의 빛을 구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주

1. *교회 지침서 제2권,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 251쪽.
2. 매리온 지 롬니 “The Celestial Nature of Self-Reliance” *Ensign* Nov. 1982, 93쪽.
3. 에즈라 테프트 벤슨, “하나님께서 태어남”, *리아호나*, 1986년 1월호, 6쪽.
4. 윌리엄 조지 조던, “Self-Contröol”, *Improvement Era*, 1909년 6월, 642쪽.
5. 샘 델리-해리스의 유누스의 소개에서 발췌한 크리스 이레의 기록, Microcredit Summit Campaign의 담당자,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에서 열린 대회, 2003년 6월 4일.
6. Benjamin Franklin's *The Art of Virtue*, 조지 엘 로저스 편집(1996년), 88~90쪽.
7. *A New Dictionary of Quotations of Historical Principles*, 에이치 엘 맨킨 발췌 및 편집(1976년), 1084쪽.

새롭게 부름 받은 두 명의 지역 칠십인

2009년 4월 4일과 5일에 있었던 179차 연차 대회에서 한국 지역의 새로운 지역 칠십인으로
배덕수 장로와 오희근 장로가 지지되었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한국 성도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전할 두 명의 장로를 소개한다.



“진리를 배우고 ... 행하며”

배덕수 장로

지역 칠십인으로 부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배덕수 장로가 처음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잘 준비된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왜 나에게 부름을 주실까?’라는 겸손함 마음에서 기인하는 이 두려움은, 그러나 부름을 가까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배 장로의 순종심을 막지는 못했다. 평소 그는 “많이 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주님으로부터 무수한 축복을 받은 자신이야말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다.

배덕수 장로는 1974년 8월 30일에 침례를 받았다.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왜 살아야 하는가?” 같은 염세적인 생각에 빠져 있던 무렵, 당시 교회 회원이었던 친형의 인도로 복음을 알게 되었다. 형을 따라서 몇 번 교회에 참석하기는 했지만 복음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는 교회를 찾아가 제일 처음 만난 회원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교회에서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돌아온 대답은 “저도 찾았으니 형제님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였다. 그때부터 배덕수 장로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1981년에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이듬해인 1982년 12월에 이미득 자매와 결혼한 배덕수 장로는 몇 년 동안 학업과 일, 그리고 신앙생활을 병행했다. 그러던 중에 선교부 회장단 보좌라는 부름을 받게 되었다. 당시는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였다. 게다가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긴장성 두통이 재발하면서 무슨 책이든 30분 이상 보기 힘들었다. 배덕수 장로는 그 시절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한 마디로 정리했다. “주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보다는 6개월 후에 있을 전문의 시험이 더 크게 걱정되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깊어졌다. 부름을 거절할까도 생각했다. 결국 스테이크 회장과 상의했고, 익히 짐작했던 “부름을 받으라.”는 권고를 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새벽, 배덕수

장로는 누군가의 말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만삭의 아내가 옆에서 곤하게 자고 있을 뿐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확실히 들렸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이었다. 그 경험 후 배덕수 장로는 기꺼이 부름을 받았다. 기적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다. 두통이 사라진 것이다. 배 장로는 부름을 수행하는 틈틈이 공부를 했고, 결국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다. 그 일을 계기로 배덕수 장로의 간증은 한층 강해졌다. 시험 합격이라는 결과 때문만은 아니었다. 부름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일을 먼저 수행했을 때 얻었던 기쁨과 행복이 배 장로의 간증을 강하게 만들었다.

배덕수 장로는 “세상은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으로 구별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따른다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청남 회장단, 세미나리 교사, 집행서기, 감독, 스테이크 회장 등의 부름에서 봉사하면서 그의 신념은 더욱 굳건해 졌다. 배덕수 장로는 한국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한다.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행하려 하면 그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능력이

자신의 생활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참임을 알게 됩니다.”

지역 칠십인으로서의 그의 목표는 35년을 이어온 간증만큼이나 단순하고, 또한 아름답다.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하며 스스로도 열심히 따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배덕수 장로는 슬하에 아들 셋과 딸 셋을 두고 있다. 그 중 큰 아들은 뉴욕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 중이며

둘째 딸과 셋째 아들 또한 선교 사업을 다녀왔다. 결혼 생활을 통해 많은 영혼을 지상으로 데리고 온 것처럼, 배덕수 장로는 이제 지역 칠십인으로서 한국을 누비며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이끌 준비를 마쳤다. ■



“주님의 겸손한 도구가 되어”

오희근 장로

오희근 장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예스맨”으로 불린다. 어떤 부탁에도 밝은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예스”를 외치기 때문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정적인 생각에 그 바탕을 둔 오희근 장로의 “예스”는 계명에 순종할 때나, 부름을 받아들일 때도 망설임이 없다. 하지만 지역 칠십인 부름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는 쉽게 “예스”를 외칠 수 없었다. 자신이 부름을 받기에 너무 준비가 안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민은 잠깐이었다. 주님께서서는 부름과 동시에 그 부름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도움과 능력 또한 주시리라는 믿음이 이번에도 기꺼이 오 장로의 입을 열게 했다.

“네. 감사합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름을 받아들였다.

오희근 장로는 군복무를 하면서 복음을 알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진리, 즉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기 위해서 군 생활 동안 혼자서 많은 노력을 하던 중에 귀환 선교사였던 진흥춘 형제를 만난 것이다. 수많은 책이나 유명한 연사들의 말보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온 젊은 군인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더욱 가슴을 울렸다. 오희근 장로는 진흥춘 형제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1981년 12월 20일에 침례를 받았다.

어느덧 삼십 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 오고 있는 오희근 장로는 “잘못을 범한 회원들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힘을 받아들여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기쁨과 감동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리고 “새로운 개종자들이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 복음이 참되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덧붙인다. 오희근 장로는 회개와 그에 따른 변화, 그리고 개종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의가 이 땅에 세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러한 느낌이 그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었다. 지역 칠십인으로서의 오 장로의 포부 또한 이와 같다. “주님의 겸손한 도구가 되어 주님의 의가 세워지고,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제 자신을 낮추고 전념하고 싶습니다.”

오희근 장로는 마태복음 7장 14절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는

바로 이 ‘협착하고 좁은 길’을 걸으려고 노력해 왔고, 그 가운데 현세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간증한다. 그러한 축복 중 가장 큰 것에 대해 오희근 장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 그리고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신의 증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간증을, 정도는 약간씩 다르지만 가족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축복이며, 그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희근 장로는 한국 서울 성전 사무장으로 일하며 와드 선교 책임자,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회장, 그리고 지역 가족 역사 고문 등으로 봉사했다. 그는 교회 생활을 통해, 그리고 겸손한 간구를 통해 복음이 주는 충만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와 경전 연구를 통해 구주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과 간증을 키우는 것이고, 두 번째가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애정 어린 봉사라고 그는 말한다.

오희근 장로는 아내인 최명순 자매와 1981년 12월에 결혼 해 아들과 딸을 각각 두고 있다. 아들은 영원한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고, 딸은 현재 대전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 중이다. ■

전국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

시온으로 모이십시오

지난 2009년 3월 15일 대전 스테이크 선화 와드에서는 전국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이 있었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회장,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최윤환 장로가 함께 하고 전국 각 지역의 스테이크 회장단과 지방부 회장단, 그리고 감독과 지부 회장이 참석한 이 모임은 안양 스테이크 지역의 형제들로 구성된 '하나로 중창단'의 노래로 시작되었다. 청소년 시절부터 어울리기 시작한 9명의 젊은 형제들은 노래와 간증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감동적으로, 때로는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이 9명의 충실한 형제들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운데 앞서거나 뒤서거나 선교 사업을 다녀왔고, 성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다. 이들이 청남이었던 그때로부터 이십여 년이 지난 지금, 9명의 형제는 45명의 가족으로 불어났다.

하나로 중창단을 조직했던 까까머리 청남들이 지금까지 교회에 남아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데는 지도자들의 역할이 컸다. 당시의 신권 지도자들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였다. 함께 운동을 했고, 함께 노래를 불렀고, 함께 고민을 나눴다. 감독의 집은 청소년들의 쉼터이자 사랑방이었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배우는 또 다른 집회소였다. 하나로 중창단원인 남용범 형제는 이렇게 간증했다. “청소년 시절에는 지도 아

문제아였을 것입니다. 그런 제가 침례를 받고 이 자리에까지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지도자들이 저희들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요구하면 항상 시간을 내 주셨습니다. 명령하지 않았습니 다. 함께 하는 시간 동안 모범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로 중창단의 순서가 끝난 후에는 최윤환 장로가 연단에 섰다. 최 장로는 감독과 고등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중창단원의 현재 모습을 소개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런 후 “한국은 이제 성장하는 후세들을 어떻게 주님의 방법으로 키울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혜안과 비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했다. 또한 후세를 훌륭히 키우는 방법 중 하나로 8월에 있을 ‘전세계 한인 청년대회’를 언급하며 그 모임에서 올바른 교리와 원리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강조했다.

두 번째 훈련자로 연단에 오른 스티븐슨 장로는 “시온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 말씀했다. 스티븐슨 장로는 “지금 진행되는 이 모임(전국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이렇게 모인



모임 후 형제들과 담소를 나누는 에번즈 회장과 스티븐슨 장로

훌륭하게 공부하고 있는 회원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시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한국의 스테이크에서 시온을 보았습니다. 이곳이 시온입니다. 돌아와야 합니다.”라고 말씀했다.

마지막 연사였던 에번즈 회장 또한 “시온으로 모이자”는 주제로 훈련했다. 에번즈 회장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다면 시온을 건립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며 한국 사람이 한국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 강조했다. 그리고 신권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의 개인적 의견을 뒤로하고, (시온으로 모이라는) 교리를 가르치십시오.”라고 권고했다. 에번즈 회장은 또한 1973년부터 집합의 장소가 미국이라는 교리가 바뀌었음을 설명하며 “이제 집합해야 할 장소는 본국입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에번즈 회장은 여름에 있을 청년 대회에서 꿈과 희망을 보고 싶다고 말씀했다. “몬슨 회장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큰 모임을 통해 함께 하면서 서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사랑과 간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 시온으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번즈 회장은 모임에 참석한 신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며 훈련을 끝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이유는 바로 시온의 스테이크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스테이크를 보존하는 방법 중 하나로 “시온의 집합”을 거론하며 “외국에서

하나로 중창단. 청소년 시절부터 이들의 우정은 변함이 없다.





사랑하는 전 세계 한인 청년 여러분

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오희근 장로

올 여름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 서울에서 여러분과 함께 ‘2009 전세계 한인 청년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54년, 아시아 대륙 최초의 스테이크를 세운 한국, 이제 한국의 교회는 개척자 일 세대에서 이 세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의 한국 교회 청년들은 자랑스러운 이 땅에서 시온의 대업을 일으켜 나아갈 미래의 지도자들이요, 꿈이요, 비전입니다.

전쟁이라는 값비싼 대가로 이 땅에 전파된 복음을 받아들인 초기 신앙의 개척자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특별한 목적으로 보내주신 고귀한 영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에 그러한 고귀한 영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이 나라의 번영과 관련하여 고든 비 힐클리 회장은 “이러한 발전은 한국 성도 여러분 때문입니다”라고 상기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여”(사도행전 17:26) 이곳 한국 땅에 보냄을 받은 우리는 “시온, 주님의 왕국,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굳게 하고 확장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애의 날에 우리가 수행할 일”(앨마서 34:32)입니다.

“나의 백성들은 그들 소유의 땅,

본향(한국)으로 모여,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시온의 대업을 일으켜 굳게 세우기를 구하라.”(니파이후서 29:14, 교리와 성약 11:6)는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의 계명입니다.

1973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있었던 해롤드 비리 회장의 공식 발표 이후 세계 각지의 성도들은 자기 조국에서 시온 건설에 참여하라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2006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집합은 각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출생과 국적이 주어진 각 나라에서 시온을 건설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각 나라는 그 백성을 위한 집합 장소입니다. 한국 성도를 위한 집합 장소는 한국입니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의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회장은 넬슨 장로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넬슨 장로님이 연차 대회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한국’을 그 예로 언급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¹

이러한 권고를 따름에 있어서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서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않고는 명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조국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시온의 대업을 일으켜 굳게 세우”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충실히 행한 자랑스러운

신앙의 권속’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청년 대회에 당신의 사도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오시는 사도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 개인과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대회 기간 동안 한국청년들이 개인적인 계시를 받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에번즈 회장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청년은 물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인 청년들이 신앙을 가지고 이 대회에 참석하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시온 건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주님께서 마련하신 방편을 확인하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

주

1.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회장이 2009년 4월 유타 주 프로보에서 열린 한인 회원들과의 노년의 모임에서 한 말씀.

2009 전세계 한인 청년 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 교회 공식홈페이지(www.ld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대회 일정, 세미나 및 활동 소개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청년 대회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홈페이지의 참가 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다.

한국 관리 본부 새로운 대표 정동환



정동환 형제가 2009년 5월 1일부로 한국 관리 본부의 새로운 대표가 되었다. 또한 재단법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이사장으로도 일하게 되었다. 총 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아 한국 관리 본부를 퇴사한 최윤환 장로의 뒤를 이은 정동환 형제는 2009년에 입사하여 최근까지 인적자원부 부장으로 일해왔다. 그는 건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인사조직 관리를 전공했다.

직원 개개인의 영적인 발전이 곧 한국 관리 본부의 발전이라고 믿는 정동환 형제는 한국 관리 본부야말로 시온을 만드는 데 정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주님의 모습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이 땅에 시온을 세우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한국 관리 본부의 목표입니다.”

정동환 형제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고,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원칙으로 한국 관리 본부를 이끌 계획이다. 그는 현재 안양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그동안 감독, 고등평의원, 선교 책임자로 봉사해 왔다. 가족으로는 아내인 김정숙 자매와 세 명의 자녀가 있다. ■

복지 이야기

비상시를 대비한 물 비축

여러분의 가정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물이 비축되어 있습니까? 비축되어 있다면, 올바르게 보관되어 있습니까? 성인은 하루에 최소한 2리터(약 0.5갤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어린이, 산모, 환자들은 더 많이 마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 준비와 위생을 위해 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성인 한 명당 약 3.8리터(1갤런)의 물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최소한 2주 분의 물을 비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은 성인 한 명당 53리터(14갤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Providentliving에 따르면, 식수 보관 용기는 완전히 깨끗하고, 공기가 통하지 않고, 잘 깨지지 않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탄산 음료수 병이 주로 사용됩니다. 만약 수자원 시설에서 염소 처리한 물이라면, 보관하기 전에 어떤 것도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소 처리 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라면, 물 3.8리터당 가정용 표백제(5% 차아염소산 나트륨)

8방울을 넣으십시오. 염소 처리 되지 않았고 물이 탁하면, 물 3.8리터당 16방울을 넣으십시오. 용기를 단단히 잠그고, 날짜를 써서, 선선하고 어두운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대부분의 용기들이 투명하기 때문에 빛이 들어갈 수 있어서, 용기들을 덮거나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교체하십시오. 온수기와 파이프 안에 남아 있는 물 등 여러분의 가정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물도 정수해야 합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식수를 준비해 놓는 것이 비상사태 시 여러분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Emergency Water Storage”, Ensign, 2006년 8월, 71쪽에서 발췌.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8명/해외 3명



강민희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 와드
캘리포니아 아카데미
선교부



이진숙 자매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템플스퀘어



권순오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봉천 와드
부산 선교부



임성진 장로
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
대전 선교부



김인협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봉천 와드
대전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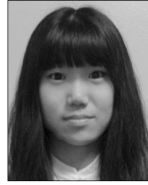
정우영 장로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대전 선교부



남윤희 자매
서울 스테이크
서대문 와드
대전 선교부



최광현 장로
서울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대전 선교부



배인영 자매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부산 선교부



최덕현 장로
서울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부산 선교부



이승은 자매
광주 스테이크
송정 와드
캘리포니아 아카데미
선교부